

온라인 기반 비대면 대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연구 -2020년 1학기 D대학 '글쓰기1' 수강생의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채영* · 안미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사소통교육부 교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Online Writing Class in College

Lee, Chaeyoung* · Ahn, Mia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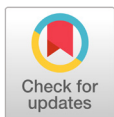
legrandbleu217@daum.net

ahnmiaie@gmail.co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lectures for new students at D University, who took the <Writing 1> lecture through a non-face-to-face online lecture method.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urvey of 206 students of Writing 1 at D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survey, first, the students of Writing 1 positively judged the non-face-to-face online <Writing 1> lecture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20th year. Next, for non-face-to-face online class methods, the preference between recording video lectures and real-time video lectures was not clearly divided.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survey showed a clear preference for recorded lectures. They also expressed the burden of being given assignments in every cla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way universities conduct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in the subject of writing, a common liberal arts subject.

Key words: online class, video lecture, real time video lecture, writing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of writing class, self-efficacy of writing skills



OPEN ACCESS

KJRE. 2021 February, 65(1): 81-105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10005>

Received: January 24, 2021

Revised: February 17, 2021

Accepted: February 17, 2021

Copyright: © 2021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주저자

** 교신저자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20년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종 분야를 막론하고 비대면·비접촉이 전제되었다. 이러한 전제는 국내 각 대학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국내의 대학은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D대학교의 경우도 학사 일정을 2주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 19 상황에 비대면 강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1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 강의로 학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교육부에서 “체계적인 원격 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을 제시하면서(2020년 3월 27일 교육부 배포 보도 자료)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이 2020년 1학기를 전면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진행 방식은 현재의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이 잠정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면 관련 제반 여건 마련에 직면한 각 대학에서는 온라인 활용 플랫폼과 프로그램, 신규 교수법 설계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수자들 역시 비대면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업 설계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강의는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의 공통 교양 강좌로 자리 잡은 ‘글쓰기’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글쓰기’ 강좌는 대학별로 교과목 명칭이 다르게 개설되거나, 교양 과목 편성 체계나 학점 이수 기준, 운영 등에서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정,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대학별 ‘글쓰기’ 교과목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까지 다수의 대학에서 진행해오던 글쓰기 강의 방식은 대면을 전제로 한 이론·실습 병행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글쓰기’ 강좌 역시 온라인 비대면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D대학 ‘글쓰기’ 강좌도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20년 1학기에는 교수자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강의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진행했다. 첫째, 한 학기 동안 녹화 동영상 기반 강의를 지속한 경우와, 둘째, 녹화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D대학은 2020년 2학기에 들어, 교양 교과과목의 경우 전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20년 2학기 D대학 ‘글쓰기’ 강좌는 Webex를 활용한 100%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대학 ‘글쓰기’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대상은 대학 1학년 신입생이다. 기본적으로 신입생은 대학 ‘글쓰기’ 강좌를 통해 논리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의 체제와 요건을 익히고 이를 활용한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즉, 대학 ‘글쓰기’ 강좌는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와 통과해야 할 일종의 관문인, 대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학술적 연구 능력 및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입학한 D대학 신입생들은 예상치 못한 온라인 비대면 기반 대학 생활에 급작스레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2020년에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은 대면 수업 방식으로 초·중·고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기반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코로나 1세대 학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수강하는 ‘글쓰기’ 강좌는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강좌이다. 따라서 이들은 첫째, 비대면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며, 둘째, ‘글쓰기’ 강좌뿐만 아니라 대학 강의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별로 없고, 셋째, 학창시절에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글쓰기’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D대학의 경우, 2020년 2학기는 전공 이론, 전공 실습, 교양 강의의 강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양 강의는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강의 방식으로 1학과 달리 녹화 강의 방식이 배제되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이러한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 ‘글쓰기’ 학습자들의 비대면 강의 진행과 글쓰기 강의 만족도 및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 학습자들의 비대면 글쓰기 강의와 이 강의를 통해 변화된, 또는 인식하는 본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도와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는 문항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이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대면 글쓰기 강의와 글쓰기 강의 자체에 대한 대학 신입생의 인식 및 자기 효능감에 대해 각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글쓰기 공통 교양 과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글쓰기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및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과 장점,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진단할 수 있다. 나아가 잠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비대면 기반 글쓰기 강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대면 강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2020년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본격적인 대학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의 시기인 2020년 이후에 다수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상반기의 관련 논의는 대학 글쓰기 수업이 아닌 전공 교과목이나 타 영역의 교양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 조사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다.¹

한편, 대학 글쓰기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인식 또는 수업 사례를 조사한 선행 연구로는 이지은, 김유경(2020)²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지은, 김유경(2020)의 논의는 구글 문서를 활용한 온라인 소집단 동료 피드백 양상 및 학습자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있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구글 문서 활용과 동료 피드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³

그러나 이 연구는 '비대면 상황'을 전제로 한 글쓰기 강의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이와 관련 있는 연구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학 강의와 관련해 단순한 온라인 강의 구현 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제외한, '비대면 강의',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 글쓰기'와 대학 글쓰기 교육 키워드로 연구된 논문들로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를 한정하여 살펴보면 7건 정도로⁴, 이경하·차지영(2020), 윤지원(2020), 김도환(2020), 이다운(2020), 정운자(2020), 박해랑(2020), 강소영(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중에서 강소영(2020)과 이유경(2020)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이경하·차지영(2020)은 덕성여대의 비대면 방식 세미나, 글쓰기 수업 사례를 살펴본 연구로,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세미나와 글쓰기 지도의 결과를 학생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독서 세미나 학습자들은 소규모 인원과 학습자-교수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담보된다면, 수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쓰기 지도의 경우에는 LMS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화상 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화상 공유 등의 기능으로 학습자와의 소통을 유도하여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고 보고하였다.

윤지원(2020)은 C대학교 기초 글쓰기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해당 수업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수업 방식,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학습 내용과 과목명의 일치성, 학습 내용 난이도의 적절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수업 자료의 적절성, 전달의 효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담당 교수 만족도는 수업 내용 만족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만 제시하였고, 주관식 응답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보인다.

김도환(2020)은 비대면 글쓰기 강좌의 운영 사례와 학습자의 반응을 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비대면 수업 진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진행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수업의 학습자들은 수업 참여를 통해 글쓰기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반응하였으나, 비대면이라는 수업 환경과 과제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김도환(2020)은 혼합형 수업 모델로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녹화 강의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이다운(2020)은 교양 글쓰기 교과와 비대면 온라인 강의 개발 사례를 제시한 연구이다.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영상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되, 영상 녹화 강의의 비율을 높여 구성한 강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학교 온라인 학습 서비스 사이트와 앱,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6C를 강조하며 글쓰기 교과 구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인상적인 연구이나 실제로 이 수업 계획이 시행된 이후의 학습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정윤자(2020)의 연구는 비대면 강의 시 사용한 매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제시한 연구로, 구체적인 강의 방식이나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효능감, 만족도에 대한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해랑(2020)은 서원대 사고와 표현1의 수업 사례를 제시한 연구로, 개별 분반에 대한 수업 구성과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첨삭)의 경우, 교수자에 따라 클리닉이 이루어진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학습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비대면 온라인 글쓰기 교육에 대해 피설문자의 87.5%가 만족하다는 반응이 나타난 점이다.

이상으로 볼 때, 비대면 온라인 글쓰기 교양 교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진행한 수업 방식, 사용한 수업 매체,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학습자 만족도 위주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종합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대학 신입생’ 학습자들에 초점을 맞춰, 대학 교양 교과목으로서 ‘글쓰기’ 교과에 대한 인식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수업 만족도,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3. 조사 대상 및 방법

비대면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의 응답자는 모두 2020년 2학기 글쓰기2 수강자로, 이 논문의 연구자 2인이 맡고 있는 7개 분반의 학생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구글폼을 이용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을 시행한 결과, 206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학번은 모두 20학번이며, 성별은 남학생이 107명, 여학생이 99명이다. 전공별로는 인문 사회 계열이 47명, 자연 공학 계열이 93명, 예체능 계열이 8명, 의학 계열이 44명, 사범 계열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설문 문항은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 <글쓰기1 만족도 조사(글쓰기2 내용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에 해당되는 문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객관식 10문항, 객관식에 대한 추가 인식 서술 6문항)

- ① 글쓰기 선호도(매우 선호한다~매우 선호하지 않는다)
- ② 글쓰기 횟수(주당)-어떤 장르의 글쓰기인가?(서술식)
- ③ 글쓰기에서 어려웠던 과정(글쓰기1을 중심으로, 복수 응답)
- ④ 글쓰기에서 흥미롭거나 자신있는 과정(글쓰기1을 중심으로, 복수 응답)
- ⑤ 글쓰기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⑥ 글쓰기의 효용성(매우 도움이 된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⑦ 글쓰기 대면 수업(오프라인) 참여 경험(대학 입학 이전 포함)
- ⑧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
- ⑨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선호하는 수업 방식
- ⑩ 비대면 온라인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2) 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객관식 10, 서술식 6)

- ⑪ 글쓰기1 수업 수강 여부
- ⑫ 글쓰기1 수업 방식
- ⑬ 글쓰기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한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⑭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
- ⑮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유지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
- ⑯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
- ⑰ 글쓰기1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정도
- ⑱ 글쓰기1 수업을 통해 향상된 실력의 분야(복수 선택)

위의 항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구글 폼을 구성하여, 학교 이클래스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객관식과 서술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객관식은 양적 연구 방식으로, SPSS 25를 이용해 코딩한 후, 통계적인 의미의 여부를 탐색하였으며, 서술식은 질적 연구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해당 항목에 대해 나타낸, 다양한 인식 양상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2020-2 글쓰기2] 강좌 인식과 개선 방안 설문

* 필수항목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 설문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 및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하세요. (응답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글쓰기를 선호하십니까?(좋아하십니까?) *

- ☐ 매우 선호한다
- ☐ 선호하는 편이다
- ☐ 보통이다
- ☐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 ☐ 매우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1-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

내 답변

<그림1> 설문 형식 예시

4.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 인식 실태 조사 결과 분석

4.1. 양적 분석 결과

양적 분석 결과는 1)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 중 단수 응답 항목인 ①글쓰기 선호도, ②글쓰기 횟수, ⑤글쓰기의 필요성, ⑥글쓰기의 효용성, ⑦글쓰기 대면 수업 참여 경험, ⑧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 ⑨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선호하는 수업 방식의 7항목과 2) 20년 1학기 글쓰기 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 객관식 10문항 중 단수 응답 항목인 ⑪ 글쓰기1 수업 수강 여부, ⑫ 글쓰기1 수업 방식, ⑬ 글쓰기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⑭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 ⑰ 글쓰기1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정도의 5항목이다⁶.

먼저 ①글쓰기 선호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6%로 나타났다. 전체 206명 중 17명이 매우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9명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른 ②글쓰기 횟수에 대한 응답은 10회 이상이 전체 중 1.5%, 3명이 응답하였으며 가장 많은 빈도는 0회로 79명, 38.3%이다. 1회~5회의 누적이 110명, 53.4%에 해당하므로 1회 이상 글쓰기를 하는 경우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체 중 61.7%가 주 1회 이상 글쓰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⑤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5%, 필요하다고 53.4%, 보통이다가 12.1%로 전체 중 99%인 204명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인 글쓰기1 수강 경험자들이자 글쓰기2 수강자인 학습자군 거의가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공에 따라 이 응답에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를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435, P<0.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의학, 인문 사회, 사범 계열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공학과 예체능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 간에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⑥글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205명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응답한 점도 이 결과를 뒷받침한다. 글쓰기가 나의 현재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9%가 글쓰기가 자신의 현재나 미래를 위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앞서 질문과 동일하게 전공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54, P<0.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의학, 인문 사회, 사범 계열과 자연공학과 예체능 계열이 각각 이질 집단으로 나타나 앞서 질문의 사후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⑦글쓰기 대면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대학 이전의 경험부터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글쓰기만을 주제로 한 대면 수업 참여 경험자들은 전체 중 25.2%인 52명이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⑧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전체 중 40.8%, 둘 다 차이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전체 중 48.5%로 나타났다. 이는 글쓰기1 수강 경험과 대면 글쓰기 주제 수업에 대한 수업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글쓰기 관련 대면 수업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응답 결과와 수업 방식에 따른 글쓰기 수업의 효용성 간의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확률 $P>0.05(F=3.560, P=0.061)$ 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두 방식 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1명으로 44.2%로 나타났으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간에는 각각 49명(23.8%), 55명(26.7%)로 선호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글쓰기1 수업의 수강 여부에 따른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⑪ 글쓰기1 수업 수강 여부/ ⑬ 글쓰기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2020년 1학기에 비대면으로 글쓰기1을 수강한 학생은 전체 중 98.1%인 202명이며, 이중 95.1%가 해당 수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중 16.5%, 매우 만족한다가 39.3%, 만족하는 편이 39.3%로 나타나 전체 중 95.1%가 2020년 1학기에 비대면으로 수강한 글쓰기1 수업의 수업 방식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결과에 대해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별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쓰기1의 수강 경험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이다. ⑫ 글쓰기1 수업 방식의 경우, D대학교의 2020년 1학기의 주요 수업 방식은 녹화 강의 방식이며, 교수자에 따라 웹엑스(Webex)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였다. 연구진 중 1인의 경우, 웹엑스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12주차부터 14주차까지 3주 간 시행하였다. 이에 지난 학기에 수강한 글쓰기1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중 67.4%가 녹화 동영상 강의만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녹화 강의와 웹엑스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중 24.2%, 웹엑스 실시간 강의만 진행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중 1.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⑬ 글쓰기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⑭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비대면 글쓰기 강의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3%인 116명의 응답자가 녹화 동영상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녹화 동영상과 웹엑스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28.2%인 58명이었다. 웹엑스 실시간 강의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전체 중 13.1%인 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일원 분산 분석 결과, 전공과 성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응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0.275$ (전공), $F=0.175$ (성별)).

마지막으로 ⑰ 글쓰기1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95.6%가 보통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향상된 편 이상으로 응답한 수도 전체의 134명(65%)로 나타나 이 설문의 응답자 중 65%이상은 글쓰기1 수업이 본인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질적 분석 결과

이번 장에서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을 분석⁷⁾하고 주관식 응답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각 문항별로 응답 내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 및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1)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① 글쓰기 선호도에 대한 이유(서술식) 응답 조사 결과⁸⁾

먼저 1)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사한 문항 중 ①의 서술식 문항은, 앞서 제시된 1번 “글쓰기를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매우 선호한다/선호하는 편이다/보통이다/선호하지 않는 편이다/매우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중 한 가지의 응답을 학생이 선택하면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객관식 문항 ①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분류하여 선호도에 따른 주관식 응답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글쓰기를 매우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7명으로, 이들의 응답 이유 중 글쓰기가 생각 정리 및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특정 장르의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 또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 글쓰기를 자주 하기 때문, 글쓰기에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명씩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1명씩 응답한 주관식 답변 역시 글쓰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인식, 또 글쓰기 수업 등 글쓰기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글쓰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7명으로, 이들의 응답 이유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도출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 둘째, 글쓰기가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명, 셋째, 글쓰기로 생각 풀기 및 전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명, 넷째, 글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명, 글을 자주 쓰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 이와는 반대로 평소에 글쓰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 글쓰기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 또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 그리고 글쓰기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총 77명으로 전체 응답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 순서를 동일 응답 인원이 많은 순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를 잘못하거나 자신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글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서술한 학생이 9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세 번째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명으로 나타났고, ‘자주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명으로 집계되었다. ‘관심 있는 주제의 글만 쓰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쓰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글쓰기에 대한 시간적 부담 또는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학생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글쓰기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명, ‘글쓰기 비선호 또는 흥미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 ‘생각 정리에 어려움을 겪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 무응답 3명 순으로 집계되었고 그 외 각 1명씩 각각의 개별 이유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가 ‘비선호’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총 35명이었다. 응답자 중 8명이 ‘글쓰기가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져서’ 글쓰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글솜씨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가 6명,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6명으로 동일한 인원 응답 비중을 보였다. ‘글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힌 학생은 5명, ‘글을 자주 쓰지 못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인 4명으로 집계되었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응답한 이유는 모두 달랐다. 이들은 글쓰기를 매우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져서’,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 결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①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효능감, ② 글쓰기 빈도, ③ 글쓰기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즉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글쓰기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평소에 글쓰기를 자주 할수록 글쓰기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고, 글쓰기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글쓰기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② 글쓰기를 주당 1회 이상한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글쓰기를 주로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주관식 서술형 문항 응답 결과⁹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글쓰기를 하는지를 주관식 문항의 응답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주당 10회 이상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주관식 문항에 답변한 학생들은 총 8명으로 일기, 다이어리 작성이 3명, 인스타그램 등의 SNS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으로 집계되었고, 편지와 대본을 작성한다는 학생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주당 6~10회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21명으로, 다수가 공통되게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주로 하는 글쓰기 유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일기(다이어리) 작성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등의 SNS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소설을 쓴다고 응답한 학생이 2명으로 나타났고, 과제, 편지, 뉴스 댓글, 독후감이나 감상문 작성 등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주당 2~5회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71명으로, 전체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글쓰기는 일기 쓰기(39명), SNS 글쓰기(16명)이었고, 감상문, 과제, 수필 쓰기가 각각 3명으로 동일한 응답 수를 보였고, 편지 쓰기(2명), 그 외 설명문, 보고서, 학원 침삭 아르바이트, 공모전 준비, 노트 필기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주당 1회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5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SNS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8명, 일기 쓰기라고 응답한 학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과제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명, 휴대폰 메모장 작성 3명, 소설이나 시 쓰기 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감상문 쓰기 2명, 자유 글쓰기 2명, 무응답 2명으로 집계되었고, 가계부, 고대 명언 쓰기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주당 글쓰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66명으로 나타났다. 62명이 평소에 진행하는 글쓰기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문자, 편지, 일기, 소설 쓰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주당 0회 글쓰기를 한다고 응답하고도 서술형 문항에 특정 유형 글쓰기의 경험을 응답한 4명의 학생은, 주당 1회에 속할 정도로 정기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자, 편지, 일기, 소설 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를 응답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의 글쓰기 빈도에 따른 글쓰기 활동 유형에 대한 서술 응답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글쓰기 빈도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글쓰기 활동은 일기 쓰기와 SNS 글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설, 감상문, 편지, 수필 등의 글쓰기를 하는 소수의 학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글쓰기는 일상과 맞닿아 있는 자유 글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주로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기나,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SNS 글쓰기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⑦ 글쓰기를 주제로 한 대면 수업(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강 기간과 수업 주제에 대한 주관식 설문 조사 결과

<표 1> ⑦ 글쓰기를 주제로 한 대면 수업 참여 기간 및 수업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

학창 시절 경험 대면 글쓰기 수업 유형 및 수강 기간	응답 내용 (중복 응답 모두 기재)	응답 인원
수업 유형 ¹⁰	논술 학원 수업	26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7
	문예원 수업	1
	면접 준비 학원	1
	글쓰기 대회 참가	1
	대학 글쓰기 수업	4
	독서 토론	2
	합계	42
수강 기간 ¹¹	1일 특강	9
	1개월 이내	0
	1~2개월	5
	3~6개월	10
	6~12개월	9
	1년 이상	6
	2년 이상	6
	3년 이상	0
	4년 이상	1
	5년 이상	1
	합계	47

학창 시절 대면 글쓰기 수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56명 중 대면 글쓰기 수업 유형 및 수강 기간을 묻는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42명으로 집계되었다. 학생들이 경험한 수업 유형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논술 학원 수업'(26명)이었으며, 자기소개서 특강 7명, 대학 글쓰기 수업 4명, 독서 토론 2명, 문예원, 면접 준비 학원, 글쓰기 대회 참가 응답이 각 1명씩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대면 글쓰기 수업은 논술 학원 수업과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입시 대비 목적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글쓰기 유형인 일기 쓰거나 SNS 글쓰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학 글쓰기 수업과 유사한 형태의 글쓰기 수업을 초·중·고등과정 정규 과목이나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접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이나,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대면 글쓰기 수업의 수강 기간에 대해서는 3~6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명, 1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명으로 동일 응답률을 보였다. 1년 이상과 2년 이상 수강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6명으로 동일한 응답 수를 보였고, 1~2개월 수강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 4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 1명으로 집계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문예원 수업이나 독서 토론, 논술 수업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시절에 1년 이상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시절 자기소개서 작성 1일 특강이나 3~6개월 정도의 입시 대비 논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대학 입학에서 글쓰기가 논술 작성 대비에 필요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까지 사고력이나 표현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차원에서 글쓰기의 효과 및 글쓰기 능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⑧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글쓰기 능력 향상에 유용한 수업 방식 선택 이유에 대한 주관식 응답 결과

<표 2> 대면·비대면 수업 방식 중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선택 유형	이유	응답 인원
2 둘 다 차이가 없다는 입장	글쓰기는 홀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	11
	글쓰기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2
	대면, 비대면과 상관 없이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3
	글을 쓰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	7
	대면 수업 경험 없어 모르겠다	9
	대면이나 비대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다	5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침묵 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	2
	수업의 질이나 방식은 비슷할 것이다	21
	상관 없다	2
	글쓰기는 실험 실습 과목이 아니라 상관 없다	1
	무응답	3
	비대면이어도 피드백을 충분히 받으므로 상관 없다	7
	수업의 내용이 중요하다	1
	수업 시간 때 놓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다	1
	글쓰기는 대면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1
	흥미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1
	합계	97
1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	혼자서 집중하면서 기기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 피드백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
	마음 편하게 시간을 들여서 쓸 수 있다	10
	글쓰기를 할 때나 수업 참여에서 부담이 적다	7
	수업 슬라이드 등의 자료 보기가 용이하다	1
	경험에 의한 결과	1
0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	글 외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	1
	합계	23
	대면 수업에서 피드백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42
	대면 수업에서 더 집중이 잘 된다	9
	비대면의 경우 각자의 환경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1
	비대면은 수업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4
	대면 수업에서는 소통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19
	대면 수업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나 효과가 좋다	2
	합계	77

학생들에게 대면 글쓰기 수업과 비대면 글쓰기 수업 중 어떠한 수업이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주관식 문항의 응답 결과, 둘 다 차이가 없다는 입장의 학생 중 97명의 학생이 이유를 작성해 주었고,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의 학생 중에서는 77명이,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의 학생 중에서는 23명이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대면이나 비대면 수업 방식 모두 상관이 없다는 학생들이 응답한 공통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글쓰기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응답(22명)이었고, “비대면 대면의 방식과 상관없이 수업의 질이나 수업 방식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21명)이 다음으로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글쓰기는 홀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11명, “대면 수업의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이 9명, “비대면이어도 피드백을 충분히 받으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 7명, “글을 쓰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7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면, 비대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5명, “대면, 비대면과 상관 없이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명, 무응답 3명, 상관없다는 입장 2명,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첨삭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 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홀로 생각을 적는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 글쓰기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대면/비대면 글쓰기 수업 방식보다는 글쓰기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대면/비대면 수업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나 질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서술한 이유를 보면 “대면 수업에서 피드백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소통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19명, “대면 수업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는 입장이 9명, “비대면은 수업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4명, “대면 수업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나 효과적이다”라는 입장이 2명, “비대면의 경우 각자의 환경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라는 입장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서 피드백과 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대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서술한 이유는 첫째, “마음 편하게 시간을 들여서 쓸 수 있다”는 점(10명 응답), 둘째, “글쓰기를 할 때나 수업 참여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7명 응답), 셋째, “혼자서 집중하면서 기기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 피드백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3명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수업 슬라이드 등의 자료 보기가 용이하다”(1명), “경험에 의한 결과”(1명), “글 외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1명)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시간 조절 및 사적 공간과 다양한 기기 활용 가능’이라는 특성이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글을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⑨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선호 수업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¹²

주관식 ⑨문항은 학생들이 대면, 비대면 수업 중 어떠한 수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객관식 설문 ⑨에서 응답한 다음,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앞서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두 수업 모두 선호하지 않음, 두 수업 모두 선호, 비대면 수업 선호, 대면 수업 선호의 4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각각의 이유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둘 다 선호한다는 응답에 대한 이유를 작성한 학생이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는 입장에서 이유를 작성한 학생이 54명, 대면 수업 선호 입장에서 이유를 작성한 학생이 50명,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이유를 작성한 학생이 8명으로 나타났다. 둘 다 선호한다는 응답에 대한 이유 중 “두 수업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선호한다”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응답이 17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면 비대면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는 입장이 13명, “상관없다”는 입장이 13명으로 동일한 응답 수를 기록했으며 “글쓰기는 혼자 시간을 가지고 적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3명), “대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차이를 모른다”(3명) “글쓰기는 마음가짐에 달렸기 때문이다”(2명), “수업 자체에 의미를 두는 편이다”(2명) 등의 응답이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글쓰기 수업이 대면이나 비대면 상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면, 비대면 수업 방식과 글쓰기 능력 신장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주관식 문항의 응답과 유사한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무응답 인원이 17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대면,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부분이 10번 문항과 일정 부분 유사한 질문이라고 파악한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 응답 내용은 첫째,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어서(시간적 여유 및 환경 선택 가능)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9명, 비대면 강의가 편하다는 의견이 8명,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무응답(6명), 대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2명), 비대면 강의에 집중하기가 더 좋다(2명) 등의 순으로 공통된 응답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선호 이유는 편의성 측면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성은 학습자의 학습 시간 조절 및 수강 환경 선택 가능이라는 비대면 수업의 조건, 또 참여 부담이 적고 이동 경로나 접근 방식이 간단한 비대면 수업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로,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작성한 이유 중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면 수업을 통해 얻는 것(능력 향상)이 더 많다는 의견(10명), 대면 수업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는 의견(7명), 무응답(6명),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서(5명), 비대면 강의의 한계 때문에(3명)의 순서로 공통된 응답이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소통과 피드백이 원활하다는 점을 꼽고 있고 이것을 대면 수업 선호의 주요 이유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면 수업에서의 집중력 향상 및 그 외 얻는 것이 많다는 점을 꼽은 학생들을 통해 대면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작성한 이유를 살펴보겠다. 무응답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선호한다(글쓰기에서 간섭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명,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명, 대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선호가 없다는 의견 1명, 글쓰기를 잘못하므로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 1명,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 1명, 다른 전공을 듣고 싶다 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나 글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 글쓰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대면·비대면 수업을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객관식 ⑩문항에서 선택한 항목 외에도 온라인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항목을 추가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의 응답 결과

<표 3> ⑩온라인 글쓰기 수업의 주요 요소를 추가로 서술한 주관식 문항 응답 결과

응답 내용	응답 인원
잘 모르겠다	1
없다	38
글쓰기와 친밀감이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1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영상 자료 외)도 도움이 될 것 같다	1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4
글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1
수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공지	1
같은 수업을 듣는 학습자 간의 소통	1
실습 과제나 시험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	1
너무 좋다	1
갑작스럽게 시키는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	1
화면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수업이 진행되기 원함	1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나 수업에 대한 집중력 필요	3
미응답	160

주관식 ⑩번 문항은 객관식 ⑩번 문항인 ‘온라인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체크’하는 문항에 이어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항목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8명으로 많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나 집중력, 교수자의 피드백 및 정확한 공지와 평가 기준 등을 언급하는 답변이 그 다음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13번 문항에서도 이미 온라인 수업의 주요 요소 중 교수자-학습자의 소통이나 피드백, 정확한 공지 등의 항목이 선택 답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14번 문항에서 대다수의 학생이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소수의 학생이 14번 문항에서 주관식으로 작성한 일부 응답은 13번 문항의 선택 항목들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3번 문항에서 제시된 온라인 수업의 주요 요소 외에 학생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학습자의 태도와 노력’,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글쓰기와 친밀감을 갖는 시간 필요’라는 의견 외에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1학기 글쓰기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 관련 문항 응답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2) “1학기 글쓰기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 관련된 주관식 설문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주관식 문항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⑭ 녹화 동영상 활용과 웹엑스 활용 중 더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 선택에 대한 이유 서술형 응답 결과¹³

주관식 문항 ⑭번은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비대면 글쓰기 수업 방식 중 녹화 동영상 기반 수업과 실시간 수업 중 어떠한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객관식 문항 ⑭번의 학생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녹화 동영상 기반 강의 선호, 녹화와 실시간 강의 병행 선호, 실시간 강의 선호, 기타 의견으로 크게 4가지의 입장으로 나뉜다.

이 중 먼저 녹화 동영상 기반 강의를 선호하는 입장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를 주관식 문항의 응답에 작성한 학생은 총 110명으로, 가장 많이 작성된 이유는 “웹엑스 시스템의 오류 발생 문제”(32명)였고, 다음으로는 “녹화 강의의 강의 수강의 편의성(시간 선택, 필기 시간 확보 등) 및 효율성”(31명)과 “복습 가능”(25명), “실시간 접속 시(컴퓨터 문제 등) 개인 수강 환경의 문제”(5명), “녹화 수업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4명), “과제나 시험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글쓰기 속도나 횟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3명)의 순으로 응답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의 병행을 선호한다는 입장의 학생들 중 이유를 서술한 학생은 총 61명으로 “두 강의를 혼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실시간 강의를 중심으로 놓친 부분을 녹화 동영상으로 복습)”고 응답한 학생이 15명, “배우는 내용에 따라 각 강의 방식이 도움되는 경우가 다를 것이기 때문(녹화를 통한 이론 수업과 실시간 피드백 동시에 필요)”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명, “화상 강의 시스템(웹엑스)의 오류”라고 응답한 학생은 9명, 녹화와 실시간 모두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학생이 8명, 실시간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실시간 강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27명이 그 이유로 서술식 응답에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하다고 12명이 응답했고, 둘째, 실시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5명의 학생이 응답했으며, 셋째, 실시간 피드백 가능하고(3명 응답), 녹화 강의의 문제점(상호 교류 없음, 집중력 떨어짐) 때문(3명 응답)에 실시간 강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입장 중 어느 쪽의 입장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학생 중 5명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언급하였다. “비대면은 모두 대면 수업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1명), “대면 수업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1명), “참여 안 함”(1명), “강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1명), “실시간 수업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1명)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녹화 수업의 편의성과 복습 가능한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실시간 수업의 상호 소통 및 교류 가능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 시스템의 오류, 실시간 접속 시 개인 수강 환경의 문제점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이 중 어떠한 측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실시간 수업, 녹화 수업, 또는 두 가지 수업의 병행 여부에 대한 선호 입장이 달라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⑮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유지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

다음으로는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에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수업 방식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⑮번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4> ⑮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유지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

응답 내용	응답 인원
과제나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66
글쓰기1 수업 경험 없음	4
미응답	38
없음	30
매체 활용(온라인 클리닉 등)	11
신속 정확한 과제 공지	8
글쓰기 예시나 샘플 제공	3
수업의 편의와 질 향상을 위해 녹화 강의 방식 진행	33
한 범위 내의 자유 주제를 선정해서 글 쓰는 과제	1
녹화와 실시간 병행하는 방식이 좋음	3
과정을 나누어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 좋음	2
과제 채점 기준 공지	1
과제 따로 없이 수업 시간에 활동으로 진행하는 방식	1
많은 실습	1
지난 수업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 희망(지난 학기 수업 방식에 모두 만족)	12
브레인스토밍	1

“과제나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꼽은 학생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응답 38명, “수업의 편의와 질 향상을 위해 녹화 강의 방식 진행”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3명,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0명, “지난 수업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 희망(지난 학기 수업 방식에 모두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2명, “온라인 클리닉 등의 매체 활용”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신속 정확한 과제 공지” 8명, “글쓰기 1 수업 경험 없음” 4명, “글쓰기 예시나 샘플 제공” 3명, “녹화와 실시간 병행” 3명, “과정을 나누어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 2명의 순으로 응답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첫째, 다수의 학생이 교수자의 피드백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다수의 학생이 녹화 강의 방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직전 학기의 수업 방식 중 매체 활용, 신속 정확한 공지, 글쓰기 예시나 샘플 제공, 과정을 나누어 과제 제출하는 방식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다음 학기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⑩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

문항 ⑩번과는 상반되는 문항으로, 2020년 1학기 글쓰기 1 수업에서 반드시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수업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 ⑩번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도출되었다.

<표 5> ⑩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

응답 내용	응답 인원
피드백 부족	7
피드백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1
클리닉/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2
수업 복습을 위해 다시 보기를 남겨주면 좋겠다	1
글쓰기1을 수강하지 않아서 모른다	3
실습 과제가 수업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1
논문 활용 페이지 응용 방법	1
만족했음	18
다양한 수업 자료 활용 필요	1
교재 사용시 페이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1
없다	103
무응답	52
기계음이 읽어주는 소리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실습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과제 기한을 늘려주면 좋겠다	1
수업을 하기 위한 매체는 웹엑스와 이클래스만 사용하면 좋겠다	1
비슷한 내용의 공지가 많아 복잡했다	1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실습/ 발표하는 과제 필요	3
녹화 강의	3
실시간 수업이 없어서 아쉬웠다	2
과제 범위가 넓거나 과제의 주제 때문에 어려웠다	2
녹화 강의의 음질 / 강의자의 목소리	2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1
공지 보완 필요 : 실습 과제에 대한 공지가 길게 나열되어 간략 제시 필요함, 빠른 공지 필요	3
학교 서버	1
비대면 강의 자체에 대한 불만	1

가장 많은 응답은 ‘없다’로, 103명이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무응답이 52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만족했음” 18명, “피드백 부족” 7명, “글쓰기 1을 수강하지 않아 모른다” 3명, “공지 보완 필요” 3명,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실습과 과제 필요” 3명, “녹화 강의” 3명 순으로 응답이 기록되었다. 또한 온라인 클리닉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 2명, 기계음이 읽어주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2명, 과제 범위나 주제의 어려움 보완 필요 의견 2명, 실시간 수업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 2명, 녹화 강의의 음질 보완 필요 의견 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20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의 개선 사항으로 학생들이 교수자의 피드백, 간결·명확한 수업 관련 공지, 다양한 주제의 실습, 온라인 클리닉 활용, 실시간 수업 병행, 녹화 음질 관리 및 교수자 직접 강의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주요 수업 방식으로 부상한 온라인 기반 비대면 수업과 대학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과 ‘20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학생 응답을 양적 분석 결과, 질적 분석 결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해 95.1%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비대면 글쓰기 강의 방식은 녹화 동영상 강의 방식이 56.3%,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의 병행 방식이 28.2%, 실시간 강의 방식이 13.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9%가 글쓰기가 자신의 현재나 미래를 위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 중 99.5%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어떤 수업이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비대면 51.5%, 둘 다 차이 없음 48.5%, 대면 40.8%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선호하는 수업 유형은 대면·비대면 수업 선호>비대면 수업 선호>대면 수업 선호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이 연구의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글쓰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② 학습자의 글쓰기 빈도, ③ 글쓰기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들 수 있다. 둘째, 주당 1회 이상 수행하는 글쓰기 유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글쓰기 빈도와 상관없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글쓰기 활동은 일기 쓰기와 SNS 글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대면 글쓰기 수업은 논술 학원 수업과 자기소개서 특강 수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학생이 경험한 대면 글쓰기 수업은 입시 대비 목적의 글쓰기 수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면 글쓰기 수업의 수강 기간에 대한 응답 조사 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 대해 대학 입학 후 위한 논술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대비에 필요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어떠한 방식이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인식과 대면·비대면 수업의 선호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은 글쓰기를 자신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면·비대면 수업 모두 장단점이 있고, 수업 방식과 관계없이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학생 의견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시공간 선택의 편의성과 다양한 기기 활용 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에 대한 사후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 방식 중 더 선호하는 강의에 대한 응답 이유 서술형 설문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녹화 수업의 편의성과 복습 가능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시간 수업의 원활한 상호 소통 및 교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실시간 수업 시스템의 오류, 실시간 수업 접속 시 개인 수강 환경의 문제점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2020년 1학기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방식에 대한 서술형 설문 응답 분석 결과, 많은 학생이 교수자의 피드백이 유지되기를 희망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녹화 강의 방식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글쓰기1 수업 방식 중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서술형 설문 응답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없다는 응답이거나 ‘무응답’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교수자의 피드백, 수업 공지 방식, 실습의 주제나 방식의 다양화, 온라인 클리닉 활용, 실시간 수업 병행, 녹화 음질 관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D대학교 <글쓰기2>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20년 처음으로 운영된 비대면 글쓰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찰하고, 나아가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자기 효능감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후 온라인 기반 비대면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시에,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온라인 강의의 가치와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 연구는 2020년 1학기 수업에 대한 D대학교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분석하였기 때문에 2020년에 시행된 온라인 기반 비대면 대학 글쓰기 수업의 진행 방식과 경과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의미망은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진행은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2020년 1학기 D 대학교의 공통 교양 <글쓰기1> 과목을 수강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글쓰기 강의와 글쓰기 강의 자체에 대한 신입생들의 만족도와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D 대학교의 20학번 신입생 중 2020년 1학기 <글쓰기1> 교과를 수강한 206명을 대상으로 질적 항목과 양적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을 시행하였다. 양적 조사의 결과, 이 연구의 피설문자들은 20년 1학기의 글쓰기1 교과에 대한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조사의 결과로는 녹화 강의가 개인 시간 활용도와 예복습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 상황에서 차시마다 활동과 과제가 부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공통 교양으로서 <글쓰기>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상황으로 진행된 데 대한 학습자의 수용 정도와 문제점, 장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온라인 기반 글쓰기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녹화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대학생 글쓰기 교육 만족도, 글쓰기 자기 효능감

References

- 박혜경,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인식 및 선호도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24-3,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0, 43~66쪽.
- 백아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교양 일본어 수업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연구』 5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20, 59~74쪽.
- 오희진, 「의료인문학 수업의 플립 러닝 적용 사례 연구: 수업 설계와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科學教育研究誌』 44-2,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20, 240~258쪽.
- 이현수,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 M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3, 한국학교수학회, 2020, 377~395쪽.
- 이희승,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21-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2020, 177~197쪽.

- 임지은·이민혜, 「온라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이 자기조절효능감과 주도적 참여를 매개로 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2-3, 한국교육방법학회, 2020, 461~485쪽.
- 정성희, 「대학 전공 영어 블렌디드-플립러닝 혼합수업 인식 및 선호도 변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157~1179쪽.
- 정혜령·우영희, 「우수 온라인 강의콘텐츠에 대한 원격대학 학습자의 연령별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한국콘텐츠학회, 2020, 429~437쪽.
- 차승본·박혜진, 「대학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사례 연구」, 『문화와 융합』 42-3, 한국문화융합학회, 2000, 289~312쪽.
- 최원호·전영국, 「비대면 온라인 수업 사례 고찰: 동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 중심으로」, 『현장수업연구』 제1권 제2호, 2020, 1~28쪽.
- 최정선·권미경·최은경,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7-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47~277쪽.
- 하명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영어교양수업 사례」,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학술지』,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9쪽.
- 강소영(2020), 「학부 유학생 대상 대학 글쓰기 온라인 강의 사례 및 개선 방안-K대학교 —<글쓰기2>, <성찰과 표현>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9(3), 한국문예창작협회, 219-249쪽.
- 권정현, 「대학 글쓰기 교과를 위한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운영 요건과 개선 방안 - 한성대학교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3-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0, 33~63쪽.
- 김도환(2020), 「비대면 글쓰기 강좌의 운영 사례와 학습자의 반응-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75, 국어문학회, 375-400쪽.
- 김윤희·임은진, 「외국인 학부생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인식 연구」,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5-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203~212쪽.
- 박해랑(2020), 「비대면 온라인 글쓰기 수업 사례 연구-서원대학교 <사고와표현1>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한국리터러시 학회, 11-35쪽.
- 윤지원(2020), 「C대학교 <기초 글쓰기>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5(2),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3-45쪽.
- 이경하·차지영(2020),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글쓰기 수업 사례 연구-덕성여대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5), 한국리터러시 학회, 61-99쪽.
- 이다운(2020), 「비대면 시대 대학 온라인 강의 개발 사례 연구-교양 글쓰기 교과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2(10), 한국문화융합학회, 195-221쪽.
- 이유경(2020),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클리닉 운영 성과와 과제」,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191-203쪽.
- 이지은·김유경, 「Google 문서를 활용한 대학 논술 수업의 온라인 소집단 동료피드백 양상 및 학습자 인식」, 『교육문화연구』 26-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27~451쪽.

정윤자(2020), 「비대면 발표와 토론 교육 방법 모색:2020년 1학기 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학술대회논문집』 11, 95-107쪽.

※부록※

<표 1> ① 글쓰기 선호도의 이유에 대한 학생 서술형 응답 결과

글쓰기 선호	주관식 응답 내용	응답 수
보통	생각 정리에 어려움을 겪음	3
	글을 쓰기 전에는 짜증이 나고 답답한데 막상 쓰다보면 재미있다.	1
	글을 보면 울렁거림	1
	글을 쓰는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7
	정답 없는 자유로움이 좋음. 생각 정리에 도움	1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작하면 최선을 다함	1
	문법이 어려움	1
	시 등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함	1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에서 글쓰기가 사용되므로	1
	글 읽는 것을 좋아함	1
	논술학원을 다님	1
	남자여서	1
	글쓰기보다 토론을 즐김	1
	말 보다는 글이 더 쉽다	1
	합계	77
비선호	어릴 때 글쓰기로 꾸중을 많이 들음	1
	글쓰기가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져서	8
	글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5
	글을 자주 쓰지 못해서	4
	글솜씨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6
	창의력 부족	1
	읽는 것에 더 흥미가 있어서	1
	과제로 써서	1
	글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2
	합계	35
매우 선호하지 않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1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져서	1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1
	합계	3

<표 2> ② 학습자의 주당 글쓰기 빈도와 수행 글쓰기 유형에 대한 서술식 응답 결과

주당 글쓰기 빈도	응답 내용 (중복 응답 모두 기재)	응답 인원
4(10회 이상)	일기, 다이어리	3
	인스타그램 등 sns	3
	편지	1
	대본	1
	합계	8
3(6~10회)	일기, 다이어리	11
	인스타그램 등 sns	4
	과제	1
	편지	1
	소설	2
	뉴스 댓글	1
	독후감, 감상문	1
	합계	21
2(2~5회)	일기	39
	sns	16
	감상문	3
	과제	3
	공모전 준비	1
	학원 첨삭 아르바이트	1
	설명문	1
	수필	3
	편지	2
	노트 필기	1
	보고서	1
	합계	71
1(1회)	일기	16
	sns	18
	가계부	1
	휴대폰 메모장	3
	학교 과제	4
	감상문	2
	날마다 다름	1
	고대 명언 쓰기	1
	무응답	1
	소설, 시	3
	없음	1
	자유 글쓰기	1
	합계	52
0 (0회)	안 함	62
	문자	1
	편지	1
	일기	1
	소설	1
	합계	66

<표 3> ⑨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선호 수업 응답 이유 서술 응답 결과

선호 입장	이유 응답 결과	응답 인원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3)	대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선호가 없다	1
	글쓰기를 잘못하므로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	1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	1
	수업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선호한다(글쓰기에서 간섭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2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2
	다른 전공을 듣고 싶다	1
	무응답	3
	합계	8
	둘 다 선호한다 (2)	3
	글쓰기는 혼자 시간을 가지고 적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1)	글쓰기는 마음가짐에 달렸기 때문이다	27
	두 수업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선호한다	13
	대면 비대면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3
	상관없다	17
	무응답	1
	글쓰기는 필수이므로	1
	글쓰기를 좋아한다	3
	대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차이를 모른다	2
	수업 자체에 의미를 두는 편이다	1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1
	지난 학기 비대면 강의에 만족함	1
	합계	84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9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어서(시간적 여유 및 환경 선택 가능)	17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7
	수업에 가기가 힘들다	1
	비대면 강의가 편하다	8
	대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2
	비대면 강의에 집중하기가 더 좋다	2
	경험에 의한 결과	1
	비대면 강의는 복습이 용이하다	1
	무응답	6
	합계	54
대면 수업을 선호한다(0)	대면 수업을 통해 얻는 것(능력 향상)이 더 많다	10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14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1
	다른 사람의 글을 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	1
	무응답	6
	대면 수업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	7
	비대면 강의의 한계 때문에	3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서	5
	대면 수업이 더 익숙하다	1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1
	대면을 선호한다	1
	합계	50

<표 4> ⑭ 녹화 동영상 활용과 웹엑스 활용 중 더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 선택에 대한 이유 서술형 응답 결과

선호 입장	이유 응답 결과	응답 인원
기타 의견 (3)	비대면은 모두 대면 수업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1
	대면 수업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	1
	참여 안 함	1
	강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1
	실시간 수업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1
	합계	5
	배우는 내용에 따라 각 강의 방식이 도움되는 경우가 다를 것이기 때문 (녹화를 통한 이론 수업과 실시간 피드백 동시에 필요)	12
	실시간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다	3
	녹화와 실시간 모두 장점이 있다	8
	두 강의를 혼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실시간 강의를 중심으로 놓친 부분을 녹화 동영상으로 복습)	15
	대면 침묵의 효율성과 편의성	1
	웹엑스 시스템의 오류	9
녹화 동영상과 실시간 실시간 강의 병행 (2)	한 가지만 하면 힘들다	1
	미응답	1
	지난 학기와 비슷하게 해야 적응이 쉽다 / 지난 학기 수업에 만족	2
	녹화 수업을 통해 복습 가능	2
	연휴에 실시간 강의를 어려워하면 녹화 강의로 대체하면 좋겠다	1
	실시간 수업에서 실습을 하면 글 쓰는 속도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므로	2
	기본 이론 내용은 녹화 동영상 강의로 충분하다	1
	이유 없다	1
	과제를 늦게까지 하다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1
	실시간 강의의 빈도가 많기 때문	1
	합계	61
실시간 강의 진행 (1)	실시간 피드백 가능	3
	상호 소통 및 교류 가능	12
	녹화 강의의 문제점(상호 교류 없음, 집중력 떨어짐)	3
	실시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짐	5
	무응답	2
	글쓰기 수업이 이론 수업으로 녹화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1
	그냥 그럴 것 같았다	1
	합계	27

<표 4> ⑭ 녹화 동영상 활용과 웹엑스 활용 중 더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 선택에 대한 이유 서술형 응답 결과

선호 입장	이유 응답 결과	응답 인원
녹화 동영상 강의 진행 (0)	웹엑스 시스템의 오류 발생 문제	32
	실시간 접속 시(컴퓨터 문제 등) 개인 수강 환경의 문제	5
	녹화 강의의 강의 수강의 편의성(시간 선택, 필기 시간 확보 등) 및 효율성	31
	복습 가능	25
	집중이 더 잘 된다	4
	과제나 시험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글쓰기 속도나 횟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3
	실시간 수업 중 실제 질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1
	1학기 수업이 녹화 강의 방식이어서 익숙하다	1
	실시간 필요성 못 느낌	1
	본인이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수업이므로	1
	녹화 강의라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1
	녹화 동영상 강의가 더 완성도가 높다	1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 교류 가능	1
	부담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2
	무응답	1
합계		110

Endnote

- 1 김윤희·임은진, 「외국인 학부생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인식 연구」,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5-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203~212쪽.
박혜경,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인식 및 선호도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24-3,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0, 43~66쪽.
백아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교양 일본어 수업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연구』 5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20, 59~74쪽.
오희진, 「의료인문학 수업의 플립 러닝 적용 사례 연구: 수업 설계와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科學教育研究誌』 44-2,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20, 240~258쪽.
이현수,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 M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3, 한국학교수학회, 2020, 377~395쪽.
이희승,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21-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2020, 177~197쪽.
임지은·이민혜, 「온라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이 자기조절효능감과 주도적 참여를 매개로 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2-3, 한국교육방법학회, 2020, 461~485쪽.
정성희, 「대학 전공 영어 블렌디드-플립러닝 혼합수업 인식 및 선호도 변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157~1179쪽.
정혜령·우영희, 「우수 온라인 강의콘텐츠에 대한 원격대학 학습자의 연령별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한국콘텐츠학회, 2020, 429~437쪽.
최원호·전영국, 「비대면 온라인 수업 사례 고찰: 동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 중심으로」, 『현장수업연구』 제1권 제2호, 2020, 1~28쪽.
최정선·권미경·최은경,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7-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47~277쪽.
차승본·박혜진, 「대학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사례 연구」, 『문화와 융합』 42-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289~312쪽.
하명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영어교양수업 사례」,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학술지』,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9쪽.
- 2 이지은·김유경, 「Google 문서를 활용한 대학 논술 수업의 온라인 소집단 동료피드백 양상 및 학습자 인식」, 『교육문화연구』 26-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27~451쪽.
- 3 권정현, 「대학 글쓰기 교과를 위한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운영 요건과 개선 방안 - 한성대학교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사고와표현』 13-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0, 33~63쪽.
- 4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2021.1.24.기준),
- 5 설문을 종료한 2020년 9월 8일 오후 7시 이후 9월 22일까지 9명의 응답자가 추가되었다. 이 응답자군의 설문은 질적 조사 결과의 대상으로, 서술식 응답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미리 밝힌다. 9명의 응답자 정보는 인문사회계열 1명, 자연공학 계열 7명, 의학 계열 1명으로 모두 20학번이며, 여성 5명, 남성 4명이다.

- 6 항목 분석 순서는 위의 설문 설계 항목 순서를 따르지 않고, 글쓰기1의 수강 경험부터 시작함을 미리 밝힌다.
- 7 참고로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도식화한 표가 너무 길게 나열되는 경우 표를 본문에 두지 않고, <부록>으로 옮겨서 제시함을 밝힌다.
- 8 ①의 개별 응답 내용 및 응답 인원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표 1>을 참고하기 바람.
- 9 ②의 개별 응답 내용 및 응답 인원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표 2>를 참고하기 바람.
- 10 기간만 기재하고 어떠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하고, 어떠한 수업을 수강했는지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한 학생의 복수 응답도 각 항목별 집계에 포함시켰다.
- 11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만 응답하고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은 제외하였고, 한 학생의 복수 경험 응답은 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함.
- 12 ⑨의 개별 응답 내용 및 응답 인원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표 3>을 참고하기 바람.
- 13 ⑭의 개별 응답 내용 및 응답 인원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표 4>를 참고하기 바람.